Symphony No. 1 in C minor, WAB 101

- □□

정보

Anton Bruckner: Symphony No. 1 in C minor, WAB 101
작곡가: Anton Bruckner (1824–1896)
작품명: Symphony No. 1 in C minor, WAB 101
장르: 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작곡 시기: 1865–1866년
초연: 1868년 5월 9일, Linz Redoutensaal, Anton Bruckner 지휘
주요 개정: 1877년과 1884년 린츠 계열, 1890–1891년 빈판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1(Bruckner)

Anton Bruckner의 Symphony No. 1 in C minor는 그가 완성한 첫 정규 교향곡으로 , C단조의 날카로운 Allegro에서 출발해 넓은 Adagio, 거친 Scherzo, 불타는 Finale로 이어지는 네 악장 작품이다. 1865–1866 년에 작곡되어 1868년 Linz에서 초연되었으며 , 전곡은 판본과 템포에 따라 약 45–52분 걸린다. Bruckner가 붙인 별명 Das kecke Beserl 은 이 곡의 젊고 대담한 기세를 잘 보여 준다. 다만 지금 듣는 교향곡은 1866년 원고, 1868년 초연 상태, 1877/1884년 개정 린츠판, 1891년 빈판 가운데 어느 악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개요
이 교향곡은 후기 Bruckner의 장대한 종교적 울림이 완성되기 전, 리듬과 관현악의 충돌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다. 첫 악장에서는 짧은 음형과 행진 리듬이 빠르게 밀고 나가고, 금관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코랄이
되기 전부터 큰 공간을 연다. Adagio에서는 속도를 늦추며 길게 호흡하는 선율이 나타나고, Scherzo는 민속 춤에 가까운 소박한 박동을 품는다. 마지막 악장은 이 재료들을 다시 모아 C장조의 힘찬 종결로 나아간다.

Bruckner가 남긴 Das kecke Beserl 은 오스트리아 방언으로 ‘대담한 작은 아가씨 ’에 가까운 뉘앙스를 가진다. 귀엽다는 뜻만으로는 작품의 거친 표면을 설명하기 어렵고, 거칠다는 말만으로는 Adagio의 섬세한 선율을
놓치게 된다. 이 별명은 젊은 작곡가가 새 교향곡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압축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작곡과 첫 연주

Bruckner 1865 1866 4 14 1868 5 9
Linz Redoutensaal Linz
Bruckner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

1866 1868

1866 1868 Thomas Röder 2016
Adagio Scherzo Adagio 2 Wolfgang Grandjean

1877 1884

Bruckner 1877 1884 `Linz Version` Robert Haas Leopold Nowak 1866 1868 1877/1884

1890–1891

Bruckner 1890 3 12 1891 4 18 1891 12 13
Hans Richter Vienna Philharmonic Bruckner University of Vienna
1891 11

빈판은 1866년 원고와 1877년 계열에 비해 관현악 , 아티큘레이션 , 구절의 길이를 세밀하게 다듬었다 . 1893년 빈의 Doblinger에서 Cyrill Hynais의 감독으로 처음 인쇄된 악보도 이 1891년 텍스트에 가깝다 . 따라서 어떤 연주가 ‘제 1번 ’을 들려준다고 할 때는 린츠 계열인지 빈판인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

소요 시간

출판사 안내는 린츠판을 약 48분 , 빈판을 약 50분으로 제시한다 . 실제 음반에는 45분대의 Röder 1868판부터 54분대의 Carragan 1866판까지 폭이 있다 . 템포와 판본 , 녹음 공간이 함께 영향을 주므로 , 시간 차이를 작품의 우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

편성

- 목관 : 플루트 2 또는 판본에 따라 Adagio에서 추가되는 플루트 ,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 금관 :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 타악기 : 팀파니
- 현악 : 제 1·제 2바이올린 , 비올라 , 첼로 , 더블베이스

출판사 약호는 3,2,2,2–4,2,3,0–팀파니 –현악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 공연 노트는 플루트 2에 느린 악장의 추가 플루트를 더해 설명하기도 한다 . 이는 판본과 표기 방식의 차이다 . 팀파니는 강세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 현악의 빠른 움직임과 금관의 진입 사이에 큰 호흡을 만든다 . Bruckner의 후기 교향곡에서 익숙한 거대한 금관 합창은 여기서 아직 젊은 음향으로 나타나며 , 목관은 그 사이를 가볍고 선명하게 가른다 .

악장별 구조

I. Allegro, C단조

첫 악장은 어둡고 불안정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지만 곧 행진적인 리듬을 얻는다 . LA Phil의 공연 해설은 흐릿한 조성의 4분음표 행진이 C단조의 주제로 모이고 , 트롬본의 장엄한 제 3주제가 전통적인 서정적 제 2주제보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 이 배치는 젊은 Bruckner가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 서로 다른 성격의 재료를 강하게 맞부딪히게 했음을 보여 준다 .

현악은 짧은 음형을 빠르게 반복하며 음악을 앞으로 밀고 , 목관은 그 흐름을 잘게 나눈다 . 금관의 합창풍 진입이 나타날 때도 모든 것이 장엄한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는 않는다 . 작은 리듬의 긴장과 큰 화음의 울림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 이후 Bruckner 교향곡에서 확장될 공간 감각의 초기 모습이 드러난다 .

II. Adagio, A♭장조

Adagio는 첫 악장의 추진을 뒤로 물리고, 긴 선율이 천천히 펼쳐지는 시간을 만든다. LA Phil은 반음계적
탐색이 흐르는 칸타빌레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현악의 선율은 넓은 호흡을 갖지만, 화성이 단번에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목관과 금관이 선율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경건한 분위기와 약한 불안이 함께 남는다.

이 악장은 판본의 역사를 생각할 때 특별히 중요하다. Bruckner가 처음 구상한 Adagio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의 발전부를 포함했지만 , 린츠판에서는 세 부분으로 이어지는 더 유연한 구조를 택했다. 초기 악장 파편과 완성된 린츠 ·빈판을 나란히 들으면, 작곡가가 느린 악장의 긴장과 회복을 어떻게 다시 설계했는지 알 수 있다.

III. Scherzo. Schnell, G단조, Trio G장조
Scherzo는 거칠고 소박한 리듬으로 움직인다. 현악의 튀는 음형과 목관의 짧은 응답은 세련된 궁정 춤보다 야외의 빠른 발걸음에 가깝다. 그러나 거친 표면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G장조 Trio에서는 음색이
부드러워지고 , 짧은 휴식 같은 선율이 앞뒤의 어두운 Scherzo를 비춘다.

1865년 초기 Scherzo와 후대 린츠판의 Scherzo는 같은 악장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작곡 상태다. 초기 파편의 신선한 추진을 완성된 교향곡 전체에 그대로 투사하지 말고, 어느 버전을 듣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IV. Finale. Bewegt, feurig, C단조에서 C 장조로

피날레의 표제는 ‘움직이며, 불타오르게 ’라는 뜻이다. 저음 현의 움직임과 목관의 짧은 선이 불안한 출발을 만들고, 금관은 앞선 악장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여러 재료가 차례로 나타나면서도 음악은 한 방향으로 곧장 나아가지 않고, 긴장을 모았다가 풀고 다시 밀어붙인다 .

마지막에는 C장조가 나타나며, 어두운 조성의 에너지가 밝은 종지로 바뀐다. 이 변화는 음악적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승리나 구원의 이야기로 바꿀 필요는 없다. Bruckner는 피날레에서 재료와 금관의 울림을 한데 모아, 젊은 교향곡이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는 결말을 만든다.

초기 Bruckner의 목소리
이 작품에서 Bruckner의 특징은 완성된 양식의 축소판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후기 작품에서 익숙해질 요소들이 아직 거친 상태로 서로 부딪힌다. 금관 코랄은 종교적인 울림을 예고하지만 , 첫 악장의 리듬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튄다. Adagio의 선율은 기도하는 듯한 고요를 만들지만, 그 주변의 화성은 계속 새로운 방향을 살핀다. Scherzo는 민속적이고 , 피날레는 이런 재료를 큰 구조로 끌어올린다 .

Gramophone의 Sawallisch 평론은 1866년 계열의 연주에서 이 교향곡의 서정성과 Schubert와의 친연성을 들었다. 이 말은 Bruckner를 Schubert의 후계자로 규정하려는 뜻이 아니라, 장대한 금관과 팀파니만으로
곡을 채우지 않고 선율의 유연한 곡선을 함께 들어야 한다는 청취의 실마리다. 젊은 교향곡이라는 사실은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힘과 섬세함이 아직 서로 다른 방향에서 솟아난다는 뜻에 가깝다.

판본을 들으며 비교하기
1866 Carragan판은 처음 완성된 텍스트의 직선적인 힘을 보여 준다. 1868 Röder판은 초연 당시의 관현악 파트에 바탕을 두어, 도입부의 악센트와 구절을 더 거칠게 들려줄 수 있다. 1877/1884 린츠 계열은 오랫동안 표준처럼 사용된 텍스트이고 , 1891 빈판은 Bruckner 자신이 마지막으로 손질한 관현악과 구절을 담는다.

버전 사이의 차이는 매 순간 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곳에서는 현악의 두께가 달라지고, 어떤 곳에서는 금관이 문장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 첫 악장의 급한 말투, Adagio의 투명도, Scherzo의 소박함, 피날레의 종결감이 달라진다. 판본 비교는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는 일이 아니라, Bruckner가 자신의 교향곡을 여러 번 다시 들여다본 흔적을 듣는 일이다.

주요 레코딩
Georg Tintner / Royal Scottish National Orchestra (Naxos 8.554430, 1866
미개정판 , William Carragan 준비): Naxos는 1866년에 적힌 초연 전후의 텍스트를 복원한 첫
녹음으로 소개하며, 네 악장은 약 54분 47초다. Gramophone의 Richard Osborne은 Tintner가
세부의 선명함과 젊은 말투를 넓은 호흡과 결합한다고 평했다. 초창기 악보의 덜 다듬어진 관현악을
듣고 싶을 때 알맞다.
Markus Poschner / Linz Bruckner Orchestra (Capriccio C8092, 1868 Linz판, Thomas Röder 편집): 2024년 발매 음반으로, 네 악장 합계는 45분 20초다. 초연 연주 파트에 근거한 Röder판을 사용하므로 1866 Carragan판과 구별된다. [t]akte가 설명하는 신판의 거친 악센트와 빠른 추진이 실제 음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Markus Poschner / Linz Bruckner Orchestra (Capriccio C8094, 1891 Vienna판, Günter Brosche 편집): 1891년 빈판 네 악장과 1865년 초기 Scherzo를 함께 수록하며, 본곡 네 악장은 약 46분이다. 관현악 ·아티큘레이션 ·구절 길이를 고친 최종 자필 텍스트를 들을 수 있어, Röder의 초기 초연 상태와 비교하기 좋다.
Wolfgang Sawallisch / Bavarian State Orchestra (Orfeo, 1866 Linz판):
Gramophone은 Sawallisch의 빠른 템포와 여유 있는 전체 호흡, Adagio의 서정성, Scherzo의
소박한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Karajan의 더 무거운 음향과 대비해 들으면 같은 1866 계열도
금관의 무게와 선율의 유연성을 얼마나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지 드러난다.

주요 자료

Musikwissenschaftlicher Verlag, Linz·Vienna 판본 안내: 판본 연대, 별명, 초기 Adagio와
Scherzo, 예상 시간, University of Vienna 헌정.

MWV New Complete Edition, 1868 Linz판: Thomas Röder의 초연 상태 편집과 새 전집의 판본
구분.

Bruckner Online Linz 연보, Wien III 연보: 작곡 완성, Linz 초연, 1890–91년 개정과 Vienna 초연.

Bruckner Online 초판 기록, WAB 대조표: 1893년 Doblinger 초판과 판본 번호 체계.

IMSLP, Symphony No. 1 in C minor, WAB 101: 원고 ·개정본 ·초판 ·편성 정보.

OEAW Bruckner Werkarchiv: WAB 101 작품 식별과 초판 서지.
[t]akte, Röder 신판 소개: 1868년 초연 파트와 신판의 편집 방향, 2014년 첫 공연.
LA Phil, Symphony No. 1 프로그램 노트: 악장별 조성 ·청취 흐름과 편성.
Argyle Arts, Bruckner Symphony No. 1: Linz 초연과 악장별 공연 해설.
Naxos 8.554430, Tintner·Carragan 1866판: 미개정판의 복원 과정, 트랙 시간과 녹음 정보. Naxos C8092, Röder 1868 Linz판, Naxos C8094, Brosche 1891 Vienna판: Poschner의 판본별 녹음과 악장별 시간.
Gramophone, Sawallisch 평, Gramophone, Tintner 평: 1866 계열 두 녹음의 템포 ·서정성 ·음향 비교.